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2021년 11월 25일 (목)

News

오늘 기준금리 또 한번 인상할까…금통위 올해 마지막 회의 — 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통위 정례회의, 25일 열리는 가운데 현재 0.75%에서 1%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마지막 회의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은 소비자물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관리목표인 2%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

당국 압박에 은행 예·적금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올린다 — 머니투데이

주요 시중은행들, 25일 한국은행의 결정 이후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분 이상으로 올리기로… 여론 비판과 당국의 '수신금리 현실화'요청 수용한 것

업계에서는 수신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대출에 영향을 덜 주거나 조달비용이 적은 상품에 적용되는 방안 검토

신한銀, 비대면 신탁형 ISA 선봬 —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가입 서비스 시행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국민으로 의무가입기간은 3년…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종합관리 상품

한 번 하면 기본 10년? …4대 금융지주 회장 차기구도는 — 국민일보

4대 금융지주사 회장 차기 레이스가 연말부터 본격화될 전망… 차기 레이스가 가장 먼저 불붙은 곳 하나금융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업계에서는 단기 실적에만 치우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반발

마이데이터로 가입조회·보장분석… 보험 서비스, 이런 것도 있네 — 머니S

마이데이터 활용하는 보험사 증가 중… 단독으로 허가 받지 않은 보험사들은 타업종 기업들과 제휴를 맺는 등 합종연횡 하는 모습

보맵과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맞춤형 보험 서비스 선보여… 보맵은 이달 말까지 보안취약점 점검 마치고 고객 편의성 극대화한 서비스 선보일 예정

실손보험 손실액 역대 최대…보험료 月5만원→6만원 되나 — 머니투데이

올해 9월말 기준 손해보험업계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 9,6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 연말까지 2조 6,000억~2조 7,000억원의 손실액 예상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고 손실폭을 줄이려면 20% 이상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 지난해처럼 금융당국이 한 자리수 대 보험료율 인상안 제시할 것으로 예측

경쟁 촉진…앞으로 中企 특화 증권사 더 늘어난다 —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 고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수를 현행 5개사 내외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한 것이 골자

현재 중기 특화 증권사 수가 한정되어 있어 이들 간의 경쟁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 또한, 특정 증권사가 중기 특화 증권사로 계속 지정되는 것도 문제

달아오르는 증권사 '마이데이터' 선점경쟁 — 매일일보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 치열…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가 증권가 미래 사업으로 낙점하면서 진출을 서두르는 분위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4개사는 적합성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